

만약 내일 자정에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1-2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지난 주일, 우리는 연합 예배에서 만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피아노를 예배당의 맨 앞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한 방문자가 다시 그 교회를 찾았는데, 피아노가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됩니다. 놀란 그는 목사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반발이 있었을텐데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Inch by Inch! 조금씩 조금씩 옮겼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교우님께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한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성도님의 삶이나 성도님이 출석하시는 이 교회에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속에 또 우리의 교회에서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이 아주 느리게 이뤄진다고 할찌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스미스 채플 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결국 변화**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즉 기독교인으로써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여러분은 진정으로 새로워지셨는가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나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달라졌어.”

그러나 이 변화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결정. 매일의 순종. 매일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 9:23)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본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롬 12:2) 여기서 바울은 “변화되었으니”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 즉,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존 마크 코머 목사가 말한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곧 변화하는 존재이다.”**

여러분은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왜일까요? 그것은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우리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피부는 28 일마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장(腸)에 있는 막은 5 일마다 재생되구요, 심지어 뼈도 7~10 년마다 완전히 재구성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우리의 성격도 변한다고 말입니다. 20 대에는 외향적이었던 사람이 40 대에는 내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우리의 기억, 감정, 성격은 환경, 관계, 습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봐야 한다면 하지요.

이 지점에서 다시 코머 목사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인간이란 곧 변화하는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변화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나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귀본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는 깊은 내면의 끌림을 뜻합니다. 옛 습관, 옛 패턴, 옛 욕망 같은 과거의 편안함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죄로의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약간만 방심해도—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말한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We're always a half step away from stupidity. 우리는 언제나 멍청함 (죄성)에서 반걸음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 아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시키셨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시련을 맞았을 때 뭐라고 말했던가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민수기 14:4)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들이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회귀 본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을 선택하기보다 예전의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던 그 익숙함을 선택하려는 죄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지요. 그러니 마음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기 쉽상인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해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미 들었고 복음을 이미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지요. 오늘 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본을 따르지 마십시오.”**

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옛 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영적 회귀본능**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 장 6 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 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쉽게 말하면, 왜 세상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갈 4:8-11)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하는데 현실은 영적회귀본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예수 밖에 날 바꿀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그렇게 살아가야하는데 다시 세상 즐거움을 찾고, 다시 세상 자랑을 붙들고, 다시 주예수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 그런 영적회귀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 4 장 22-24 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2 장 2 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본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오(metamorphoo)”입니다. 마태복음 17 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바뀌셨을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영어의 “변태(metamorphosis)”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하지요—예를 들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단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우리의 마음, 생각, 욕망, 방향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전에는 기어다녔다면—이제는 날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기쁨을 좇았다면—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새로운 존재가 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심각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 한분만으로 나는 충분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 그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히 영적 정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말은 곧 내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회귀본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누구로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자주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곧 꾀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 장 2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변화는 목표를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목표가 되시면, 비록 그 것이 어렵다고 한들, 우리는 그분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출신의 메이저리그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지금은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한 시즌 통산 홈런 50 개와 도루 50 개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 기록보다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고등학교 시절에 그가 찢던 시간표였습니다. 훈련, 식사, 공부, 수면을 얼마나 철저히 계획했는지,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려 하는 그의 철저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노력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의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최고의 야구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그 정도의 명확함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스케줄—내 생각, 결정, 쉬는 것, 삶의 체력과 에너지 등등—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열망과 목적을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면,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까지 힘입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Unreached Within Reach"**라는 전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에 관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양성심 교우님과 저희 가족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양성심 교우님은 참석을 간절히 원하셨지만 아쉽게도 건강상의 문제로 끝에 가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첫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부터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번갈아 가며 참석했지요. 날씨는 무덥고, 폭풍우도 몰아치기도 했고, 오고가는 교통은 차가 많이 막혀 몸이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임했습니다. 감사했던 것 중 한가지는 단지 이론을 배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슬림 이웃들과 교류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울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저는 아프가니스탄 가게들 몇 곳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몇 명 사귀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각지에서 와서 이번 트레이닝에 참석한 복음 전도에 열정적인 동료들을 만난 것도 참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한 교제 속에 힘도, 격려도, 도전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불평할 때도 있고, 힘들어하며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그러한 불완전한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스미스 채플(Smith Chapel)을 위한 기도입니다—우리가 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일로 점점 더 변화되어 나가는 것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감동 속에 살아가는 간증과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한가지 또 분명히 배우는 것은—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던 그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지요. 그는 수많은 어려움, 또 육체의 질병이 그의 삶과 그의 사역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왜 그에게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가? 아니 주님 위해 이걸 하려는데 왜 질병을 주셔서 못하게 하는가? 그러나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지요. 심지어 가택 연금인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며 조금도 막힘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 28:30-31).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겠지만, 또한 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 장 24 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또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셨지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고, 많은 고난을 겪는 길이었으며, 마침내는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압니다. 그 길은 곧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매일 매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시는지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존 웨슬리(John Wesley)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 내일 자정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개할겁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구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보도록 해볼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글로스터에서 설교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설교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튜크스버리로 말을 타고 가서 오후에 또 설교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성도들과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 후에는 평소보다 30 분 일찍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웨슬리는 죽음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삶 위에 그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는 이미 매일매일을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며,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날을 이미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 3월 2일, 87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웨슬리는 마지막 병상에서도 자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육체는 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한 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존 웨슬리가 침대 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자정에 죽는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해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급히 잘 만들려고 분주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주님, 드디어 뵈네요.”

“주님,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시는 것,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그러한 거룩한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세상을 닮아가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소서.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내일 자정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해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족과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또 주님의 사명으로 가득해져가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